

石油問題의 再認識

“石油危機가 또다시 올 것에 對備할 必要性은 尙存하고 있다. 이러한 認識과 準備없이는 第2의 經濟跳躍은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石油企業들은 우선 重化學工業 育成이라는 國家的 次元에서의 支援體系에 包含되어 主要産業으로서의 位置와 責任을 共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戰略的課題를 추진할 수 있는 再投資財源의 확보, 競爭力을 構築할 수 있는 收益性的의 실현, 가격정책 및 主要經營政策上的의 自律性擴大가 불가피하게 要請된다.”



洪 在 瑛
〈雙龍精油·常務〉

한동안 石油애기만 나오면, 치를 떨던 사람들이 요즘은 石油야 인제 남아돌아가는 時節이 왔는데 무슨 걱정할 일이 있겠는가 하는 식의 느긋한 자세들이다. 한때 모두가 부러워 하는 好況을 누리던 石油業界는 이제 몇기 굵은 行랑아범신세가 되어 손바닥만한 누룽지 한쪽 놓고 피를 흘려야 하는 斜陽産業이 되어 버렸고, 아부다비에서 OPEC 총회가 열리건, 國內油價가 오르건 끄덕도 없다.

현금주고도 配給받는식으로 사써야 했던 검은 黃金은 이제 外上주며 바겐·세일에 나서야 할 천덕군이 되어버렸다. 작년 이맘때만해도 40달러 이상을 주며 現物市場에서도 물건을 잡지 못하여 마크·릿치니 필립·브러더스니 하는 현물상인들을 배불려 주었던 똑같은 石油가 이제는 出血을 強要하는 과잉상품이 된 것은 石油안나는 第3世界의 가난한 나라들에게는 일시적으로 숨돌릴 기회를 주는 다행일런지 모른다.

그러나 항상 과거를 망각하는 美德 속에 끝없는 시행착오와 역사의 오류를 되풀이하여온 우리의 지난날을 돌이켜 볼때 이러한 石油과잉과 低價石油時代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지내는가에 따라서

오늘의 石油情勢는 石油業界뿐만이 아니라 우리 經濟全體에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災難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우리 모두의 選擇에 따라서 石油問題는 과거와 같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고 무대에서 사라질 수도 있으며 反對로 古城의 악령같이 주기적으로 출몰하여 과국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經濟나 우리 石油業界를 보기 前에 우선 지난간 10余年間의 石油情勢의 展開過程을 일별해 보면, 몇가지 注目해야 할 큰 줄거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로, 두차례에 걸친 石油波動은 예외없이 石油는 制限없이 쓸 수 있는 過剩供給商品이라는 認識이 지배하던 供給過剩의 絶頂期를 지나면서 뒤따라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73年前半期의 好況과 낮은 石油價格, 77~78年間의 石油과잉, 일부 產油國의 국제수지난, 판매경쟁, 소비국들의 낙관과 에너지 소비확대 뒤에 온 사태가 과연 무엇이었던가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둘째로, 石油危機의 촉발은 恒常 需給이나 經濟的 因果관계가 아니라 國際政治的인 구조變化에서

□ 提 言 □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70年代에 들어와서 OPEC의 세력이 強化되기 시작한 것은 리비아의 친미적 이드리스王政이 무너진 뒤 들어선 革命政權과 관련된 것이며, 73년의 파동은 中東戰爭에 따른 아랍團結이라는 大義를 내세우기 위한 政治戰略의 일환으로 展開되었던 것이며, 79~80년의 파동은 이란의 王政 붕괴와 과격파 이슬람共和政府수립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세째로, OPEC의 強力한 등장과 연속적인 석유 위기는 70年代를 일관하여 進行된 中東, 아프리카, 東南亞 等 第3世界에서의 美国의 상대적 지휘저하, 리더·쉽의 상실과 王政 붕괴, 과격·진보정권의 증대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60年代末과 70年代를 거치면서 美国은 第6합대의 基地이며 地中海의 요충이던 리비아를 위시하여 이디오피아, 南北예멘, 베트남, 앙골라, 이란 등에서 철저히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러한 不安한 전망은 사다트死后 힘의 진공상태가 예견되는 中東일대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끝으로 주목해야 할 사실은 30배의 原油價引상이 있었지만 世界經濟는 石油로부터의 自由獨立을 주장할 정도로 代替에너지 開發을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도 石油中毒症에서 벗어날 아무런 조짐도 없다는 點이다. 石炭이나 原子力은 漸次로 에너지사용구성에서 점점 큰 比重을 점하고 있기는 하지만, 完全代替의 役割을 맡기는 어렵게 보이며, 특히 石炭의 경우 환경, 노동, 수송부문에서의 근본적인 애로와 취약점때문에 石油와의 競争에 問題를 안고 있다.

더욱이 현재의 석유 공급과잉은 근본적으로 景氣沈滯라는 수요계약요인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일시적 현상일 뿐이며, 景氣가 조금이라도 회복기미를 보인다면, OPEC나 산유국의 限界的인 生産조정에 의하여 곧 부족현상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세계의 安定的擴大成長을 가로막고 全般的 위기속에 잡아두고 있는 石油問題는 표면화되어 있지 못할 뿐이지 經濟社会 깊숙히 潜在하여 다시 發動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國家經濟적으로나, 石油를 다루는 業界로서나, 石油를 사용하는 消費者로서나, 언젠가 石油危機가 소리없이 다가들 것이란 豫상을 하고 대비하

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필요성은 尙存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인식과 준비없이, 第2의 經濟跳躍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歐美의 經濟가 限界的인 程度의 景氣回復만 이루어지고 사우디가 一部 減産을 단행한다면, 82年 下半期頃에는 需給의 均衡이 回復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며, 對西方石油供給의 교두보라고 볼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를 둘러싼 政治社会情勢를 보면 3,000台的 西獨製 레오파드 탱크, 프랑스製 미라주機와 美国의 F-16機, 국경을 따른 수백km의 방공망, 美国으로부터의 AWACS를 비롯한 80억弗台의 최신방위장비 도입으로 莫強한 軍事力을 갖추게 되겠지만 페르샤만의 盟主라고 떠들던 이란의 경우를 상기해 본다면, 그러한 軍事力만으로 内部的인 권력투쟁, 복합사회로서의 갈등, 이스라엘 및 강경아랍국들과의 문제, 일반 민중들의 의식과 생활근대화에 따른 과격사상상의 노출위험등을 지닌 王政의 安定이 確保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國內적으로 보더라도 일단 景氣回復이 本軌道에 들어서고 投資와 消費가 活性化된다면 需給의 均衡化는 물론이고 이에서 한걸음 나아가 需要패턴의 高級化—輕質油比重의 增加—를 위시하여 새로운 問題들이 提起될 素地도 없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石油를 둘러싼 진정한 問題點은 한편으로는 石油問題가 이제 問題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으며, 石油産業은 아무런 國民經濟의 기여나 역할을 할 수도 할 필요도 없는 斜陽産業에 불과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 결과로 석유산업은 주요산업으로서의 인식과 배려의 대상에서 빠져서 장기적으로 필요불가결한 戰略을 수립, 준비해 나가야 할 氣力마저 상실해가고 있는 形便이다. 경기가 정상적으로 回復되면 다가올 또 다른 石油問題를 능동적으로 處理하며 필요한 國民經濟的의 所任을 主導적으로 展開해 나가야 할 石油産業은 어떠한 波動下에서도 石油에너지需給의 安定化를 實現하고 經濟成長 발전에 따라 變化하는 要求를 充足시키기 위하여 業界의 힘과 衆智를 모아

- ① 製品需要의 輕質化 추세에 조속히 副應하기 위한 重質油分解設備의 確保
- ② 自主的인 原油開發輸入을 위한 準備體制의 구축
- ③ 原油導入先의 多邊化를 위한 自主努力의 展開

④ 競争力強化를 위한 不斷한 設備의 改替와 効率化 및 技術開發

⑤ 原油輸送 및 製品需給輸送시스템의 合理化와 効率化

⑥ 国家的에너지수요의 多邊化에 대응하며 石油企業의 國際化를 實現하기 위한 綜合에너지企業으로의 轉換과 多邊化

라는 長期戰略을 수립, 추진해야 할 필요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石油企業들은 우선 重化學工業 育成이라는 国家的次元에서의 支援體系에 包含되어 主要産業으로서의 位置와 책임을 共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將來에 要請되는 諸般 戰略的課題를 自主적으로 推進해 나갈 수 있는 再投資 財源의 確保와 競争力の 構築을 可能케 할 收益性의 實現과 價格政策 및 主要經營政策上的 自律性擴大가 不可避하게 요청된다. 勿論 業界로서는 보다 徹底한 合理化, 効率化와 創造的革新에의 努力을 強化하며 戰略的情報시스템의 確立, 희생적인 減量經營과 自己開發, 에너지企業으로서의 召命과 責務의 完遂에 힘써야 할 것이다.

아울러 原油多邊化라는 名分下에 전개되는 非石

油企業을 포함한 国内企業間的 원유 확보 경쟁의 과열화를 정리할 수 있는 体制의 확립, 石油企業의 競争力を 뒷받침하여 줄 수 있는 보다 強力한 國家 備蓄制度의 도입과 原油도입금용의 필요한 再編, 整備(예컨대 元貨유전스 같은), 非石油에너지의 개발 수입이나 기타 收益事業으로의 진출내지 多邊化에 대한 보다 開放的인 配慮가 있어야 할 것이다.

再言하거나 恒常 낙관주의가 최절정에 달했을 때에 다음 단계에 돌이킬 수 없는 悲劇의 씨앗이 뿌리를 내렸다는 술한 教訓을 돌이켜 본다면 石油問題는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되는 작금의 時點에서 再發의 可能性을 찾아야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對備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石油業界는 석유나 에너지問題가 없어지지 않는 限 항상 國民과 國家앞에 해야 할 責務가 있는 것인만큼 오늘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괴롭더라도 좌절하거나 물러서서는 아니 될 것이다. 지금부터 몇년후엔가 닥쳐올 결정적 시기에 대비할 業界전체로서의 움직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석유를 둘러싼 경제적, 사회적, 국제정치적 變數는 쉬지 않고 돌발적인 破局의 드라마를 엮어내기 위하여 움직이고 있는지도 모를기 때문이다. *

이라크, 美国石油会社와 供給契約체결, 79年以来 처음

戰爭의 폐허를 原油輸出로 재건시키려는 노력이 한창인 이라크는 종전 輸出國의 制限과 目的地規制 條項等を 完화시키면서 2년간의 공백을 깨뜨리고 일부 美国 石油会社들과 새로운 契約을 체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PIW紙가 最近호에 보도했다.

美国의 강력한 Anti-Boycott法과 함께 1979년과 80년에 걸쳐 취해진 이라크의 輸出國制限 규정은 그당시 約30~40萬b/d의 이라크産 原油를 가져가던 美国石油会社들의 대부분을 퇴거시켰으며 그후 이란·이라크戰이 발발하자 평상시 輸出마저도 중단되었었다.

PIW紙의 보도에 따르면 美国의 한 獨立系 精油会社는 地中海行과 아프리카인을 통해 1년간 30,000b/d의 이라크産 輕質原油를 구매하기로

하는 契約을 締結하였으며, 또 다른 한 会社는 契約締結을 위한 協商을 시작할 豫定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契約을 締結한 会社는 이라크 국적선이나 傭船한 油槽船을 이용, 來年 1月부터 시리아의 바니아스 港에서 契約原油를 引受하기 시작하게 되며 현재 協商中에 있는 트리폴리行 送油管이 稼動되면 그곳에서 공급받게 된다.

이 原油는 美国의 精油工場으로 운반되나 美国의 石油会社는 이 原油를 餘他地域으로 판매하거나 다른 商品으로 바꿀 수 있는 權限을 가지게 된다.

이라크는 1970年 後半에 自國의 輸出原油에 대해 엄격한 目的地 규제를 해왔는데 이러한 제한 규정들은 현재 아주 약화되었다. *